

새 오픈 소스 프로젝트 시작하기

[@trustin_ko](#)

스타트업과 비슷한 듯 다른 듯

- 상당한 자원이 필요하다
 - 끝없는 시간 · 노력 · 능력
 - 적당히 좋은 정도에서 멈추었다가는 ..
- 보장된 보상이란 없다
 - 심지어 상당히 대중화된 후에도 e.g. OpenSSL
- 경쟁이 치열하다
 - 특히 인기 있는 분야 - Web frameworks

스타트업과 비슷한 듯 다른 듯

- 금전적 투자를 기대하기는 힘들다
 - 가능성 이전에 제대로 된 구현이 필요
 - 비영리 기관 설립 및 유지의 어려움
- 그래도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다면
 -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재미
 - 큰 기대는 금물
 - 나, 타인, 프로젝트를 동일시해서는 ..
- 실패해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

무엇보다도 중요한 것

프로젝트에의 순수하며 지속 가능한 의지

라이선스

- 자유로운 MIT/BSD 스타일의 라이선스
 - 실질적 거버넌스는 소스 코드가 아닌 커뮤니티에 있다.
 - 포크를 하느냐 당하느냐에 연연하지 말자.
 - 커뮤니티가 클 수록 성장의 폭도 크다
 - 규모의 경제
- Contributor License Agreement
 - 외부에서 작성된 코드의 소유권을 프로젝트 소유자에게 이양
 - 향후 프로젝트의 소유권자나 라이선스가 바뀌는 경우

호스팅

-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호스팅
 - 현재 Github
- 호스팅 서비스의 기본 기능을 최대한 활용
 - Git 사용법 마스터
 - 충실한 내용의 README.md
 - 도메인 등록이나 사이트 구축은 천천히 ..
 - Issues, Pull requests, Labels, Milestones
 - Wiki

지금은 혼자지만

- 누군가는 보고 있다!
 - 미래의 팀원 ?
 - Exceptional code quality
 - Contextual commit messages
 - Polished road map - Issues & Milestones
-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가 온다!
 - 결국 부끄러워질 일은 하지 않는 쪽이 좋다.

준비가 되었다면

-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홍보하자.
 - 공식 Twitter 계정 및 블로그
 - 관련 기술 커뮤니티, 지역 커뮤니티, ...
 - Reddit, Hacker News, Dzone, ...
- 그러나 ...
 - 기대하기에는 너무 일렀다는 것을 통감하게 됩니다.
 - 프로젝트 중심의 사용자 · 개발자 커뮤니티 형성을 목표로 꾸준히 활동해 봅시다.
 - '순수하며 지속 가능한 의지'

모든 것은 디테일에 ...

- 사용자 지향성을 최우선으로

- 사용자의 최종 코드와 개발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?
 - 다운로드, IDE의 설정, 문서의 열람, 최종 실행, 디버그, ...
- 사용자에게 대한 응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?
 - 초창기에는 소규모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다.

- 함께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목표로

- 사용자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
- 협업의 즐거움을 느끼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
- 만져야 하는 코드의 상태가 항상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도록

사실 당신은 수행修行중입니다.

- 자아의 분리

- 누가 프로젝트를 비방해도 - 설사 그것이 잘못된 내용일지라도 - 그건 내가 아니라 내가 만든 버그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차분히 응대할 수 있다면 ...

- 토론에 있어서의 인내

- 왜 그래야 하는지 - 설사 그것을 이해시키는 데 10 여개의 댓글이 며칠에 걸쳐 왕복되어야 하더라도 - 설명할 수 있다면 ...

- 그럼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예의

결과적으로

- 우리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통해
- '어쩌면'
- 더 나은 개발자가 되고
- 더 많은 사람을 만나
- 더 나은 인격체가 될 지도 모릅니다.
→ '순수하며 지속가능한 의지'의 도움 하에 ...